ISSN 1226-9050

2018 DECEMBER VOL.66

KAMJE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소식

발행인: 최인홍 **편집인:** 홍순원 **주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층 **전화:** 02)794-4146 **FAX:** 02)794-3146 **www.kamje.or.kr**

의편협 정책연구 결과 JKMS에 게재

의편협 2015년도 정책연구과제 '학술지 평가 경과 분석에 관한 연구' 결과가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Impacts of the Journal Evaluation Program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KAMJE) on the Quality of the Member Journals"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https://doi.org/10.3346/jkms.2018.33.e305). 홍성태 전임 회장 임기에 오세정 당시 기획평가위원장이 책임연구자, 양희진 기획평가위원이 연구원으로 참여하였으며, KoreaMed 등재학술지 중 초기평가 및 재평가 결과가 있는 129종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각 항목별 점수의 변화, 학술지의 SCI 등재 여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모든 학술지에서 재평가 점수는 초기평가 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의편협 초기 평가를 받고 나서 재평가 이전에 SCI에 등재된 학술지와 그렇지 않은 학술지의 점수를 비교했을 때 초기에는 별 차이가 없던 점수가 SCI 등재된 학술지에서 유의하게 높아진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의편협 학술지 평가가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발전이라는 목표를 이루는데 일조했으며, 학술지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는 것이 국제 색인에 등재되는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편협 정책연구는 의편협의 설립취지를 살리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의편협의 성과를 잘 요약해서 보여주는 동시에 자국의 학술지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다른 나라에 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필요성과 성과를 보여주는 역할모델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2016년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열린 APAME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으며, 2017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전문가 심사 및 과학출판 관련 국제 학술대회인 Peer Review Congress에서도 발표된 바 있다.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워크숍 개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윤리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의편협 출판윤리위원회에서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s for Medical Journals)" 3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저자들을 모시고 2018년 12월 1일(토), 서울의대 융합관 1회의실(307호)에서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각 저술 내용에 대한 발표 및 논의로 진행된 본 워크숍에는 18인의 저자가 참석하였으며, 가이드라인 출판은 3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17-3차 KoreaMed 등재 학술지 통합 재평가회 결과 보고

의편협에서는 단체회원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위해 KoreaMed 등재 후 7년 주기로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5일(월) 오후 5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1층 GDR 5,6,7에서 열린 제17-3차 KoreaMed 등재 학술지 통합 재평가회에서는 총 10종(대한골절학회지, 대한체질인류학회지, 수면정신생리, Annals of Clinical Microbiology, Annals of Hepato-Biliary-Pancreatic Surgery(AHBPS), Archives of Craniofacial Surgery, Hip & Pelvis, Korean Journal of Biological Psychiatry,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Yeungnam University Journal of Medicine)이 평가를 받았으며, 10종 모두 평점 3.0점 이상을 획득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평점 3.0 이상을 받은 학술지는 의편협 규정에 따라 KoreaMed(koreamed.org)에 계속 등재됩니다. 심사를 통과한 학술지 총평을 공개하오니 KoreaMed 등재 및 재평가를 준비하고 있는 단체회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한골절학회지

대한골절학회에서 연 4회 국 · 영문으로 발간하는 학술지로 심사대상이 된 제31권 3호 (2018년 7월호)에는 원저 3편, 종설 2편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표지에서 오류사항은 없으며 책등에 페이지를 표시하여 책꽂이에서 찾아보기 쉽게 하였습니다.

투고규정은 필요한 내용이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는데 영문, 국문 두 가지의 규정을 갖고 있고 두 규정에서 일부 내용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점검하여 수정하는 것이 좋겠고 가능하면 둘 중 하나만 유지하는 것이 관리 면에서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페이지의 레이아웃도 오류 없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 교신저자를 표기하는 편지봉투 모양의 아이콘은 옅은 회색으로 시인성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중심단어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배열하도록 투고규정에 자세히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점이 독특한데 게재된 논문들에서 중심단어의 나열이 이 원칙에 잘 맞게 배열되고 있는 점은 우수했습니다.

투고규정에는 국문초록으로 나와 있는데 게재된 논문에서는 요약으로 되어 있어서 규정과 통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SI 단위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SI 단위가 아닌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측정치의 범위가 SI 단위로 표기하기에는 잘 맞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인데 이 부분은 투고규정에서 좀 더 명확히 규정해서 통일성을 유지하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서 일부 약자 설명이 없는 것이 있는데 해당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약자라도 한번쯤은 설명하는 것을 권장하며 해당 약자가 모든 논문에 공통되는 것이라면 별도 규정에 약자 목록을 기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표, 사진, 도표도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는데 그림 설명에서 오자가 하나 발견된 것을 옥의 티라고 하겠습니다. 간기를 잘 지켰고 참고문헌 서지사항의 오류가 적은 것도 우수한 점입니다.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학술지로 보이며 다소 낮은 인용도 지수를 올려서 더 좋은 학술지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2. 대한체질인류학회지

대한체질인류학회에서 연 4회 국 · 영문으로 발간하며 심사 대상이 된 제43권 1호 (2018년 6월호)에는 원저 3편, 증례 1편 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표지에서 오류사항은 없습니다.

학회가 학술지를 발간해도 학술지에는 학술지 관련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점에서 속표지에 나와 있는 학회 임원 명단은 다른 곳으로 옮기고 여기에는 학술지 관련 내용을 우선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게재논문 목록에 오탈자는 없으나 목록에 논문이 종설인지 원저인지 증례인지 알아보기 쉽도록 종류를 표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잘 정비된 학술지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안내가 충분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논문 첫 페이지의 오류는 없으나 국문 초록이 처음에 나오는 것은 일반적인 배치는 아니므로 영문초록으로 대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자 소속의 고유명사 표기에서 일부 오류가 있는데 우리나라 학술지에서 종종 보는 것으로서 공식적인 소속으로 기재하도록 저자에게 안내하고 최종 편집 과정에서 원고편집인이 한번 더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논문 본문에 오류는 없으나 실험에 사용된 여러 시약에 대해서 약자가 설명되지 않은 것이 발견됩니다. 또한 투고규정에는 증례의 introduction은 제목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게재된 증례에 introduction 제목이 표기되는 것이 있어서 투고규정에 맞는 편집이 필요합니다. 또한 원저의 투고규정에는 언급되지 않은 결론이 있는 논문이 발견된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표에서 어깨기호를 붙이는 요령이 투고규정과 다른 논문이 있고 유의값이 0으로 표기된 것도 <0.001 혹은 <0.0001로 수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진은 컬러 인쇄해서 선명하고 시인성이 좋지만 일부 사진은 크기가 작고 사진에서 유의한 소견에 대한 표시가 부족한 것이 아쉽습니다. 다른 곳에서 가져온 그림에 일부 내용을 추가한 것이 있는데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꼭 수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도형그림도 컬러 인쇄한 점은 우수하지만 어깨 문자 붙이는데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약자 설명이 상세하지 않은 것이 아쉽습니다. 간기를 잘 지켰으며 국내 논문 인용비율이 비교적 높은 것은 우수한 점입니다. 편집인에 따르면 제호를 변경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이 기회에 체제를 잘 정비해서 면모를 일신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3. 수면정신생리

대한수면의학회에서 연 2회 국 · 영문으로 발간하며 심사대상이 된 제25권 1호 (2018년 6월호)에는 원저 3편, 종설 1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표지도안은 준수하나, 저널 홈페이지 주소와 색인 정보를 추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판권관리란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일부의 정보들이 학회 임원명단 페이지에 함께 섞여 있어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회 임원명단보다는 편집위원들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고규정은 자세하고 대부분의 필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논문 종류별 구성요소 및 작성요령이 별도로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고규정에 기술된 논문 구성요소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구성요소를 포함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관련된 투고규정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고 이에 부합하는 통일성 있게 편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자, 소속 및 초록, 본문에서 중대한 오류는 없으나, 일부 표에서 항목 이름이 없는 열이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참고문헌에 페이지 표기가 통일되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오류로는 동일한 페이지가 연속하여 2장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편집 및 제본에 좀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반적으로 인쇄 상태가 불량하여 글자가 뚜렷하지 않고 희미하게 인쇄된 부분들이 있고, 잉크가 군데군데 뭉쳐서 글자 외에 검은 부분들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는 학술지로 평가되지만 중대한 오류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교정이 필요합니다.

4. Annals of Clinical Microbiology

대한임상미생물학회에서 연 4회 국 · 영문으로 발간하며 심사대상이 된 제 21권 3호 (2018년 9월호)에는 원저 3편, 증례 1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표지 도안은 무난합니다. 인쇄본이 다소 얇기는 하지만 책등에 페이지 표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고규정은 전반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으나 이해관계상충에 대한 언급이 보완되면 좋겠습니다. 논문 첫 페이지 배치는 적절해 보이나 다기관 연구 논문에서 저자소속기관을 표시할 때 줄바꿈, 도시 표시의 원칙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수정할 부분입니다.

초록의 단어 수는 비교적 규정에 맞추고 있으나 일부 논문에서 약자에 대한 설명이 빠진 것이 발견됩니다. 본문의 체제에 있어 투고규정에는 국문요약으로 되어 있으나 논문에서는 국문초록으로 기재되어 있어 통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표에서 약자 설명이 상세하지 않고 일부 오자가 발견되는 점은 아쉽습니다. 사진을 컬러 인쇄해서 알아보기 좋은데 사진에서 보이는 유의소견에 대한 화살표시가 상세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도형그림은 단색이지만 농담의 차이가 분명하여 시인성은 좋으나 약자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지 않은 것이 발견됩니다.

간기를 잘 지켰으며 참고문헌 중 국내학술지 비율이 높으며 서지사항 오류가 적은 것은 우수한 점입니다. SCI 등재학술지가 아니면서도 SCI 인용지수가 0.326으로 좋은 편에 속합니다. 게재된 논문 4편 중 3편이 영문인데 학술지의 특성을 고려해서 영문으로 전환한 후 PMC 등재를 시도하고 이후 인용도를 제고해서 SCI 등재를 시도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5. Annals of Hepato-Biliary-Pancreatic Surgery

한국간담췌외과학회에서 연 4회 발간하는 학술지로 평가대상이 된 학술지는 제22권 3호 (2018년 8월호)이며, 원저 10편, 증례 5편 등 모두 15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표지 디자인은 무난하나, 책등에 표시되어 있는 학술지명, 제호 등 정보가 좀 더 가독성 있게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편집위원의 명단이 누락되어 있는데 앞표지 뒷면에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투고규정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으나 책임저자의 역할, 제목 작성요령을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저작권 이양 서류에 책임저자의 대표 서명만 요구하고 있는데, 모든 참여저자의 서명을 받는 서식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또한 저자 검검표가 빠져 있어서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중심단어에 약어가 사용된 경우가 있고, 전공 분야의 특수한 용어가 중심단어로 사용된 논문이 보이는데, 가급적이면 MeSH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표에 사용된 약어 설명에 대한 표기법이 투고규정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이 보이며, 표와 그림의 설명에도 약어로 표기된 부분이 많은데 모두 풀어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미경 사진을 사용한 그림의 경우 해상도가 높은 사진으로 제시되면 좋겠고, 그림 설명에 현미경 배율을 명시하면 좋겠습니다. 참고문헌은 일부 오자가 관찰되긴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중대한 오류 없이 잘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의학편집인위원회(ICMJE)가 2017년부터 권장하고 있는 자료공유(Data Sharing)와 젠더관련 내용을 투고규정에 포함하는 것을 권합니다. 전반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학술지이나, 표가 투고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기를 권합니다.

6. Archives of Craniofacial Surgery (ACFS)

대한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에서 연 4회 영문으로 발간하며 심사대상이 된 제19권 2호 (2018년 6월호)에는 원저 5편, 종설 1편, 증례 8편, 사설 1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큰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아래 몇 가지 사항들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우선, Copyright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혼동 표기되어 있습니다. 투고규정 페이지-ii "Provision of Research ···."의 'IV. Copyright and CC attribution License'에 표기된 Copyright 소유권자 (the Korean Society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ns)와 Instruction for Authors 및 각 논문 내지에 표기된 Copyright 소유권자 (the Korean Cleft Palate-Craniofacial Association)가 서로 다릅니다. 이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Copyright 소유권자를 기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투고규정 문장 중, 중복 표기된 일부 문장은 삭제하고, 부적절하게 기술한 문장은 교정하기를 권합니다. Creative Common License의 version (3.0)을 최신 version (4.0)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행인의 성명과 함께 소속을 병기하여 표기하기를 권합니다. 중심단어 가능한한 MeSH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종설 논문에 사용된 사진과 그림이 저자의 오리지널 사진인지를 확인하고, 타 저자의 사진이나 그림인 경우 정확한 출처를 표기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저 논문의 실험방법 부분에 기관윤리위원회의 표기가 필요합니다. 동일한 저자의 소속기관 표기가 논문에 따라 다르게 기술된 것이 발견되므로 보다 세심하게 영문 소속기관 표기를 확인하기를 권합니다. 논문의 표에 샘플 수(N)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논문의 조직 사진 내에 배율 혹은 scale bar의 표시가 필요합니다. 환자의 evaluation sheet (122 페이지)는 출처를 기술하면 좋겠습니다. 그 외 표지도안, 투고규정의 내용, 각 논문의 초록과 본문의 체제, 참고문헌 표기의 정확성 등은 오류 없이 전반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7. Hip & Pelvis

대한고관절학회에서 연 4회 영문으로 발간하며 심사대상이 된 제30권 3호 (2018년 9월호)에는 원저 5편, 종설 2편, 증례 1편, 사설 1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표지도안이 깔끔하고 색감이 매우 선명하여 좋은 인상을 줍니다. 판권관리란에 대부분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발행인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편집진 정보 페이지는 매우 간결하고 중요 정보 위주로 구성되어 훌륭합니다. 투고규정은 대부분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나, 참고문헌을 모두 영문으로 작성한다는 규정이 빠져있어 보완이 필요합니다. 투고규정 최종 업데이트 날짜를 업데이트 시마다 기재하기를 권합니다. 저자 소속 정보에서 여러 명의 저자가 여러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어깨번호로 명확하게 소속 기관을 표시해야 하는데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참고문헌에서 오탈자가 발견됩니다. 표, 그림, 사진은 대부분 선명하고 잘 정리가 된 모습이나, 일부 그림과 사진에서 전체 설명 없이 개별 설명만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학술지이며, 편집진의 꾸준한 노력이 돋보입니다.

8. Korean Journal of Biological Psychiatry

대한생물정신의학회에서 연 4회 국 · 영문으로 발간하며 심사대상이 된 제25권 3호 (2018년 8월호)에는 원저 5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출판되고 있는 학술지입니다. 이를 감안했을 때 실물평가에 사용된 인쇄본 버전에서의 오류는 실제 반영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를 들어 판권관리란은 온라인 홈페이지에는 아예 없어서 빠른 시일 내 보완이 필요합니다. 홈페이지에서 편집위원 명단과 학회 임원의 명단이 같이 배열되어 있고 글꼴의 크기, 배치가 알아보기에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학회 임원명단과 편집위원 명단은 분리하고 편집도 개선해서 간결하고 알아보기 쉽게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고규정은 윤리규정을 포함하여 매우 자세하게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저자명과 소속은 논문마다 통일성 있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고문헌에서 특별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고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몇 군데 오탈자가 발견되며 마침표가 누락된 문장들이 있습니다. 약어를 괄호 안에 표시할 때 불필요한 단어가 추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표에서 항목 이름이 없는 열들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발행을 새롭게 시작하는 학술지로서 온라인 환경의 장점을 살려서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 더 훌륭한 학술지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9.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여성건강간호학회에서 연 4회 발간하는 학술지로 평가대상이 된 학술지는 제24권 3호 (2018년 9월호)이며, 발행인의 글 1편과 9편의 원저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표지 디자인은 무난합니다. 투고규정은 국문과 영문, 두 종류로 제공되고 있는데, 국문 투고규정의 경우 출판윤리에 관한 내용이 투고규정에는 없고 연구윤리규정에만 별도로 제시되어 있어 저자가 참고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국문과 영문 사이에 차이가 있어 혼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국문과 영문 투고규정의 내용을 일치시켜 제공하는 것이 좋겠고, 출판윤리에 대한 내용도 투고규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투고규정에 제목 작성요령, 용어 및 도량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기 바랍니다. 저작권 이양 서류에 책임저자의 대표 서명만 요구하고 있는데, 모든 참여저자의 서명을 받는 서식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기를 권합니다.

중심단어가 국문과 영문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2편의 논문에서 국문 또는 영문 중심단어가 누락되어 있고, 투고규정에 정한 중심단어 개수 5개를 초과하는 논문이 1편 있습니다. 영문 투고규정에 요약제목은 45글자 이하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논문에서는 제목 전체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표에 사용된 약어 설명이 투고규정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고, 표의 설명에도 약어로 표기된 부분이 많은데 모두 풀어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문헌은 1편의 논문에서 투고규정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연구보고서를 인용한 경우가 확인되었고, 일부 오자가 관찰되긴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중대한 오류 없이 잘 기술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학술지이나, 특히 표가 투고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기를 권장합니다.

10. Yeungnam University Journal of Medicine (YUJM)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간하는 대학 기반의 학술지로서, 연 2회 국 · 영문으로 발간하며 심사대상이 된 제35권 1호 (2018년 6월호)에는 원저 6편, 종설 5편, 증례 11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투고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항목들은 모두 들어 있으나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지 않아서 투고하는 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특히 종설과 증례의 작성법에 대한 내용이 부족합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는 투고규정으로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인쇄본의 책등에 해당 권호에 수록된 논문의 페이지 번호를 기재하면 좋겠습니다. 발행인의 성명만 표기되어 있고, 소속기관 표기가 없습니다. 논문 중 2편에서 논문제목의 길이(글자 수)가 투고규정에서 정한 150자를 넘고 있습니다. 규정을 준수하여 논문제목을 편집하거나, 필요 시 논문제목 길이에 대한 투고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록의 중심단어로 정확한 MeSH 용어 사용이 필요합니다. 종설 논문(3페이지)에 사용된 그림(Fig. 2)이 출처는 명확히 표기되어 있으나, 저자가 해당 출판사로부터 사용허가(permission)을 얻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참고문헌 중 한글(Korean) 논문임이 표기된 논문들이 제대로 된 영문제목이 있는 논문인지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논문의 일부 도표는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보이도록 편집과정에서 개선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페이지 21, Fig. 1). 여러 표에서 괄호 안에 표기된 퍼센트(%) 및 나이(year) 표기가 독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통일성 없이 표기되어 있으므로 세심한 편집이 요구됩니다. 한 개의 참고문헌에서 대소문자 표기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논문의 본문에서 중대한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부 영어 문장들이 연구결과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영문 검토에 좀 더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들에서는 전반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학술지입니다.

제41차 KoreaMed 등재를 위한 의학학술지 신규평가회 결과 보고

2018년 12월 3일(월) 오후 5시, 서울의대 융합관 1층 GDR 5에서 제41차 KoreaMed 등재를 위한 의학학술지 신규평가회가 열렸습니다. 금번 평가회에는 학술지 4종(대한소아치과학회지, 우울조울병, Anxiety and Mood, Clinical Pain)이 참여하여 평가를 받았습니다. 4종 모두 평점 3.0점 이상을 획득하여 KoreaMed 등재지가 되었습니다. 심사를 통과한 학술지 총평을 공개합니다.

1. 대한소아치과학회지

대한소아치과학회에서 연 4회 발간하며 심사대상이 된 제45권 3호 (2018년 8월호)에는 원저 12편, 증례 2편, 종설 1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표지도안은 미려하나, 책등에 페이지를 표시하면 검색과 정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표지 안쪽 페이지에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의 정보를 참고하여 open access 정책을 명시하면 더 좋겠습니다. 페이지를 매길 때 논문 외의 투고규정은 별도의 페이지로 매겨서, 학술지의 권, 호가 넘어갈 때 논문들의 페이지가 건너뛰지 않고 연결되도록 페이지를 매기기를 권장합니다. 책의 앞쪽에 편집위원회 명단이 영문으로 배치되어 있고, 책의 뒤쪽에는 국문으로 된 학회임원 명단만 있습니다. 책의 뒤쪽에 편집위원회의 자세한 명단과 발행인, 출판사 정보를 배치하기를 권합니다.

투고규정은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으나 개정의 이력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점이 아쉽습니다. 보강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투고규정에 이해관계 관련규정과 저자의 자격요건, 특히 책임저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보강을 권합니다. 자가 점검 사항과 저작권에 관한 동의서를 제시해야겠습니다. 논문 종류별로 형식을 자세히 규정하면 좋겠습니다.

초록에서는 한 단락으로 기술한 경우도 있고, 목적, 방법, 결과, 결론 부분을 단락을 바꾸어서 기술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문초록에 연구자의 직급, 교수 직급을 기술하고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지 고려해보십시오. 연구방법에 기관윤리심사를 통과했는지 여부를 기술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술지의 특성 상 연구 참여자의 얼굴 사진이 많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얻었는지 명시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십시오. 본문에서 p-value를 기술하는 방식이 논문 상호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계 프로그램이나 연구 기자재의 제조사를 기술할 때 도시와 나라를 포함하여 일관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표의 내부 중간에 가로줄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제시된 부분이 잘 관리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편집을 전담할 수 있는 원고편집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평가에서 언급된 사항들을 잘 정비하여 보다 훌륭한 학술지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2. 우울 · 조울병

대한우 · 조울병학회에서 연 3회 발간하며 심사대상이 된 제16권 2호 (2018년 7월호)에는 종설 1편, 원저 6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표지도안은 무난하나, 책등에 페이지를 표시하면 책꽂이에 꽂을 때 권호뿐 아니라 페이지를 볼 수 있어서 검색과 정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투고 규정은 필요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고 책임저자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은 우수한 점입니다. 온라인 심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국내 학술지 인용비율이 높은 것도 바람직한 점입니다.

여러 저자가 공저한 논문에서 논문에 따라 저자의 소속 영문 표기가 상이한 것이 발견되고 참고문헌 표기에 오자가 있으며, 서지사항의 오류가 많은 것, 본문 구성 요소의 제목이 논문에 따라 다른 것, 투고규정에 없는 구성요소가 있는 논문이 발견되는 점은 편집 과정에서 걸러져야 할 부분이고 원고 출판을 담당하는 출판사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초록은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영문 교정을 해서 오, 탈자는 거의 발견되지 않으나 투고규정의 단어수 규정을 초과하는 논문이 발견되는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권두의 편집자의 글에서 곧 영문학술지로 전환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홈페이지도 개편하면서 온라인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NLM 카탈로그의 정보도 수정하고 이번 심사에 나타난 점을 보완하여 더 좋은 학술지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3. Anxiety and Mood

대한불안의학회에서 연 2회 발간하며 심사대상이 된 제14권 1호 (2018년 4월호)에는 7편의 원저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표지도안은 무난하며 책등에 그 호의 페이지를 표시하면 검색과 정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투고규정은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으나 요즘 연구윤리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해관계상충(conflict of interest)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처방안이 기재된 것은 좋은 점이지만 절차에 대해서는 COPE 등을 참조하여 수정하면 더 좋겠습니다.

초록 단어 규정이 200단어인데 330단어인 논문이 발견되는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해당 논문의 저자가 주장하는 면이 있다 해도 학술지 편집은 편집인, 편집위원회의 고유 권한이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 학회 회원들, 투고자들이 그 편집권을 존중하는 인식이 확립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학술지의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간기를 지키지 못한 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잘 정비된 학술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있어서 온라인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DOI를 부여하고 있는 것도 우수한 점입니다. 국내 학술지 인용빈도가 높은 점은 우수하나 참고문헌 표기에 오류가 많고 서지사항 오류도 높아서 이런 부분은 원고편집인의 도움을 받거나 인쇄를 담당하는 출판사와의 협의를 통해 좀 더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전 평가에 비해 개선된 점이 보이며 앞으로 이번 심사에서 발견된 부분을 보완해서 더 좋은 학술지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4. Clinical pain

임상통증학회와 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에서 연 2회 발간하며 심사대상이 된 제17권 1호 (2018년 6월호)에는 종설 4편, 증례 3편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표지도안은 미려하나 논문들의 목록이나 그림을 실어서 공백 부분을 활용하면 좋겠고, 책등에 페이지를 표시하면 검색과 정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표지 안쪽 페이지에 학술지의 지향점을 표방하는 글과 편집위원회를 소개하는 내용을 실어서 현재의 공백 부분을 활용하기를 권합니다. 목차에는 논문의 종류를 소제목으로 명시하면 좋겠습니다. 페이지를 매길 때 논문 외의 투고규정은 별도의 페이지로 매겨서, 학술지의 권, 호가 넘어갈 때 논문들의 페이지가 건너뛰지 않고 연결되도록 페이지를 매기기를 권장합니다. 책의 뒤쪽에 투고규정 다음에 편집위원회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자가 점검 사항과 저작권에 관한 동의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편집위원회의 정보는 책의 앞쪽 표지의 안쪽 페이지나 책의 제일 뒤쪽에 발행인, 출판사 정보와 함께 배치하기를 권합니다.

투고규정에 이해관계 관련규정과 저자의 자격요건, 특히 책임저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보강을 권합니다. 논문 종류별로 형식을 자세히 규정하면 좋겠습니다.

그림과 표에 나오는 머리글자 약어 중 전체 명칭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림 설명에 있는 용어가 그림 내부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초록에 나온 약어라 하더라도 본문에서 처음 나올 때는 약자를 설명하는 것을 권합니다. 연구방법에 기관윤리심사를 통과했는지 여부를 기술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구 참여자의 신체 사진을 싣는 것에 대하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얻었는지 명시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십시오. 통계 프로그램이나 연구 기자재의 제조사를 기술할 때 도시와 나라를 포함하여 일관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례의 제목에 일률적으로 –증례보고–와 같이 넣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 고려해 보십시오. 참고문헌 기술이 투고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한 논문 안에서도 기술 방법이 일관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제시된 부분이 잘 관리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편집을 전담할 수 있는 원고편집인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 원고편집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최근에 개설한 투고용 홈페이지를 활용하면서 이번 심사에서 나타난 점들을 잘 정비해서 학술지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12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개최 안내

의편협에서는 국내 의학학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편집인께 도움을 드리고자 2019년 1월 11일(금)~12일(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에비슨 의생명연구센터(ABMRC) 1층 유일한홀에서 제12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를 개최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12월 28일(금)까지 의편협 홈페이지(kamje.or.kr)의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어 사전등록을 하여 주시고, 사전등록기간이 지난 후에는 당일 현장등록이 가능합니다. 당일 중식과 연세의료원 지하 주차장 주차권이 제공됩니다. 상세 일정은 아래 일정표를 확인하여주시고, 강의 제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일 1월 11일(금)

시간	강의 제목	강사
08:55 – 09:00	개회	박중원(의편협 교육연수위원장)
Session I : 의학학술지의 변화와 경고		
09:00 – 09:30	학술지와 출판윤리	최인홍(의편협 회장)
09:30 – 10:00	연구 및 출판윤리위원회의 심의 현황	한동수(의편협 출판윤리위원장)
10:00 – 10:30	저자됨과 CRedit 소개	김수영(의편협 감사)
10:30 – 10:50	**Coffee break**	
Session II : 의학학술지 출간의 새로운 변화		
10:50 – 11:20	Clinical & Omics Data Achieve 시스템 소개	조성범(질병관리본부 생명정보연구과장)
11:20 – 11:50	Gender 혁신과 학술지 출판	이혜숙(여성과총 젠더혁신센터)
11:50 – 12:30	논문 Figure 정리 및 Illustation 작성	장동수(Medical Illustration & Design)
12:30 – 13:30	**점 심**	
Session III : 의학학술지의 발전경험		
13:30 – 14:00	의학학술지의 세계적 출판경향과 JKMS 출판	홍성태(의편협 명예회장, J Korean Med Sci 편집장)
14:00 – 14:30	의편협 학술지 재평가 시 흔히 보는 문제점	양희진(의편협 평가위원장)
14:30 – 15:00	학술지 발전 경험 – 1	이한홍(J Gastric Cancer 편집 간사)
15:00 – 15:30	학술지 발전 경험 – 2	박해심(Allergy Asthma Immunol Res 편집장)
15:30 – 15:50	**Coffee break**	
Session IV : 디지털 시대의 의학학술지 발행		
15:50 – 16:30	Updates on KoreaMed & Synapse	김태일(의편협 정보관리위원장)
16:30 – 17:10	Submission System Tools that Help Editors Detect Fraud and Ethical Lapses	Tony Alves(Aries Systems Co.)

제2일 1월 12일(토)

시간	강의 제목	강사
Session V : 의학학술지 편집인이 알아야 하는 실무 사항 I		
09:00 – 09:30	국내 학술지의 의편협 평가 및 과총 평가 방침	오세정(의편협 부회장)
09:30 – 10:30	Improving Communication Skills for Reviewing English Journal Articles	황윤희(Compecs)
10:30 – 10:50	**Coffee break**	
Session VI : 학술지 발간의 최근 경향		
10:50 – 11:50	New Content Formats and New Channels – Communication Science Effectively Beyond the Journal Article	Basil D'Souza(Editage)
11:50 – 12:20	Turnitin 활용	곽재현(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
12:20 – 13:20	**점 심**	
Session VII: 의학학술지 편집인이 알아야 하는 실무 사항 – II		
13:20 – 14:20	학술지 편집인이 알아야 하는 의학통계	안형진(고려의대 의학통계학교실)
14:20 – 15:00	Peer Review 잘하기	이선영(의편협 교육연수위원)
15:10 – 15:30	**Coffee break**	
Session VII : 의학학술지 편집인이 알아야 하는 실무 사항 – III		
15:30 – 16:10	학술지 편집인의 역할	박중원(의편협 교육연수위원장)
16:10 – 16:40	투고 논문의 연구 Design 적절성 평가	김창수(의편협 교육연수위 간사)

* 강의 제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의편협 정기총회 안내

2019년도 의편협 정기총회가 오는 3월 28일(목) 오후 2시,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임상2강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및 2019년도 상반기 의편협 주요 일정 안내

의편협에서 주최하는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주요 행사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제12회 편집인 아카데미: 2019년 1월 11일(금)~12일(토), 연세의대 에비슨 의생명연구센터(ABMRC) 유일한홀
· 제12회 논문작성 워크숍: 2019년 2월 16일(토), 신촌세브란스병원 본관 6층 은명대강당
· 2019년도 의편협 정기총회: 2019년도 3월 28일(목),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 임상2강의실

회원 현황 및 회원 가입 안내

본 협의회의 단체회원은 2018년 12월 현재 264종 학술지(의학 학술지 202, 의과대학 학술지 11, 치의학 17, 수의학 3, 간호학 20, 영양학 6, 생명과학 5)이며, 개인회원은 42명입니다.
특별회원으로는 (주)갑우문화사, 네이버(주), (주)누리미디어, 광문출판사, 메드랑(의학문화사), 아이비기획, 아카데미아, 엠투커뮤니티, 우리의학사, (주)워드바이스, 이월드에디팅(Eworld Editing), 인권앤파트너스, 진기획(㈜제이피앤씨), 최신의학사, 크림슨인터렉티브코리아(주), 클래리베이트애널리틱스코리아(주), (주)Compecs, Editage, InfoLumi, ML communications(중앙문화사), XMLink(주) 등 총 21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단체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홈페이지(kamje.or.kr)의 회원가입 안내를 참고하거나 사무국(Tel: 02-794-414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